

말씀의 샘

찾으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1~24절>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린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앞당겨서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깃, 유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통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공격하는 모습도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네 주민들이 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수치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을 못 누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독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타락한 천사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의존하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방황의 시작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상하긴 했지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눠주 주었습니다. 며칠이 안되어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물려주신 유산을 휴대하기 좋은 현금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최소한의 시간이 며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먼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인 것입니다. 남겨진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부터 걱정, 아들에 대한 괴로움으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자기가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기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물려준 재산으로 새로운 사업 구상과 삶의 계획들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 다르게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이름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며 먹는 것도 부실하여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으려 했지만 그 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완전히 망하게 된 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허랑방탕한 나라입니다. 재산을 낭비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없애기까지 멈추질 않는 소비를 자극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망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때 맞추어 흉년까지 든 나라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탕자를 망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굶어죽게 만드는 환경으로 예비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먼 나라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마귀의 세트장과 같습니다.

결국 탕자는 자유가 그리워서 나갔는데 더 큰 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결국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난 먼 나라는,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분명 망합니다.

누가복음 15: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장면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에**” 가 두 번, 이것이 탕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에**” 가 있길 바랍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 가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에**” 는 마음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의 1단계라고 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에**” 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에**” 를 실천하기 위해서 탕자는 댕가를 지불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빚을 지고 돼지농장에 붙여졌다면 빚 노예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그는 목숨을 거는 탈출을 했어야만 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일에 이러한 결단과 행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눅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생각지 못한 반응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그를 금방 알아보고 달려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날마다 아들이 나간 방향을 향해 그 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보고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남자 성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들이 보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명망 있는 어른이며 마을에 유지인 사람인데 아들앞에서는 체통 따윈 온데 간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모자라 남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다 공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체통을 버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눅 15: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권세와 권리 회복, 기대 이상의 반응, 포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양 비유,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비유, 잃었다가 찾은 아들 비유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잃었다가 찾은 때의 반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부르고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날, 아주 기쁜 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며 그 기쁨은 누가 돌아오든지, 어떤 경우에 돌아오든지, 예외 없이 항상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늘 기억하십시오. 어느 경우에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늘 기쁘게 맞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6. 2. 28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3. 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이사야 43:1~3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구원과 주 되심"

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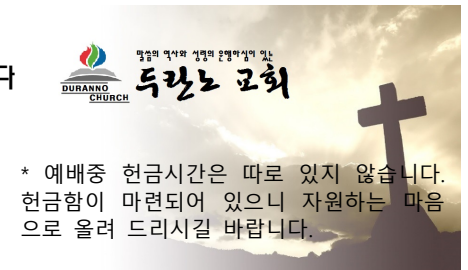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